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천아포수산연구소와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아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구소에 들어서니 생애의 마지막 막시기는 2011년을 비롯하여 2차레나 이곳을 찾아오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못건디게 그림다고 하시면서 이 연구소도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애민유산중의 하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낳은 결정체인 연구소구내에 장군님의 현지지도포식비를 정중히 전립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를 잡아주시였으며 연구소의 이름을 천아포수산연구소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공수정실, 알발육실, 실내 및 야외양어못, 사료가공장, 물고기가공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연구소앞에 나서는 과일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가공품들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아포수산연구소가 자리잡고있는 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어촌마을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인민군대에



천아포수산연구소의 관리운영을 맡기였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양어에서도 세계패권을 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일념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교양마당과 주변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키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업소에서 당의 령도밑에 새로 건설한 현대적인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수업과 수산업, 건설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절실히 필요한 그물과 바줄, 수지관들을 생산하고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은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건한 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좌석수는 얼마인가, 리용은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회관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회관복도에 게시한 직관물들을 보시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특히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제, 반미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안고 무대에 나온 소개자는 전례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신시찰의 길에 계시며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원수님께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예술선전대는 공연무대에 남성총창 《혁명의 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여성총창 《내 심장의 목소리》, 시랑송 《원수님은 화선에 계신다》, 여성6총창 《인민의 환희》, 트럼베트와 노래 《총성의 대답소리 <알았습시다>》, 토막이야기 《훈련장의 두 분대장》, 남성독창과 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타5명창 《7.27행진곡》, 시와 이야기 《사회주의불빛과 조병의 눈빛》,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교양적의 큰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인의 예술선전대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있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남측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사이의 실무회담이 17일 관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북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거리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데 대해 다시금 밝히고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비행기와 특로에 의한 배양경로와 필요한 운수수단, 경기진행과 응원활동, 신변안전문제와 통신보장 및 우리 기자들의 취재활동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리면서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제22차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전례가 있는것만큼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내부적협의를 거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오전 회담에서 북측안에 호응하던 남측이 이후에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완전히 돌변하여 도전적으로 나왔다.

남측은 지령을 받느라고

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 북과 남사이의 무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하였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면서 헐뜯고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한것이 바로 《비핵, 개방, 3000》을 떠든 리명박보수당국이였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로골적으로 떠들다 못해 《통일은 한반도에 도적같이 울수 있다》는 꾀변으로 《체제통일》, 《흡수통일》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보임으로써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이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로

조되던 북남관계가 과국으로 치달고 결과적으로 북남사이 에 포탄이 오고가는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이 이전 《정권》의 대결정책이 틀어놓은 이러한 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대신 전입자들의 전철을 되풀이하고있는것은 지금 온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북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대응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

속에 칼을 풀고 말로만 《신뢰》와 《통일》을 운운하는 구시대적인 령전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2돐이 되었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날다. 민족적 긍지와 환희에 넘쳐 이 날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기에 온 겨레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계속되는 침략위협속에서도 끄떡없이 배심든든하게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민족의 대극상후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갈것인가 하는것은 전세계의 관심사였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부대에 대한 현시찰을 단행하시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미국의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 김정은 령도자께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명크사단을 시찰하면서 군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박수도 쳐주었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았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김정은령도자의 땅크 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1월 1일 금수산태양 궁전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 첫인사를 드린 그 길로 조

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명크사단을 시찰하신것은 선군위업의 변함없는 계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것과 같은것이였다.

선군위업의 변함없는 계승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멀고 험한 전선시찰의 길을 취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쳐시였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견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최전방 판문점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았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김정은령도자의 땅크 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

오늘도 철령의 새벽안개, 오성산의 산악은 그이께서 헤쳐가신

천 출 명 장 을 높 이 모 시 여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험난한 전선길의 사연많은 이야기들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천만리길은 온 올해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

과 락판을 안겨주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의해서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에 의하여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대의 박차를 가해나아가 한다고 하시였다.

온 겨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단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그이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의 주민들이 모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지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능력은 바로 실력으로 판가름된다.》

김정은원수님은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한 나라를 령도한다는 단순한 정치행정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원수님의 실력은 정치행정분야뿐아니라 군사작전분야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군사작전에서 김정은원수님의 대응능력을 시험해보려다가는 엄청난 대재앙을 불러올수 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날에날마다 비약하는 공화국에서 경제전반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전진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황기가 펼쳐지고있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총대를 앞세우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이루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을 머지않아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최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발사 훈련, 국방과학기술, 군수공업부문에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같은 발사와 훈련들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위협천만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자위행위이다.

전술무기들의 과학기술적, 전투적성능의 검증과 사격방법의 완성, 무장장비들의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놓고 사람들이 다시금 감복을 금치 못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기신 명언의 값 있는 뜻이다.

—사랑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 거대한 업적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다.

일찍부터 군사를 앞세우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의 관건적문제여기신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의 전기간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국방력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 세계 90년대중엽 공화국은 민족의 대극상과 거듭되는 자연재해,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를 기회로 공격의 화살을 조선으로

돌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례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릇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사용동안 수습해야 하고 가족이 재난을 만나면 3개월을 수습해야 하고 고을이 재를 당하면 세해를 수습해야 하지만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30년을 수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이 겪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말로써는 다 형언키 어려운 최악의 고난이고 최대의 시련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연히 련하신것은 군력강화를 위한 전선시찰이였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행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고파야 한다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선군장령을 끝없이 이어가신 장군님 이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문전에 수료를 하시며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고,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았던 안되었는가에 대해 다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하신것은 바로 오늘과 래일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였다.

주체87(1998)년 12월 어느 날에도 그이께서는 우리가

파자나 알사랑같은것은 만들지 못하여도 살아갈수 있지만 무기와 탄알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갈수 없다. 우리가 무기와 탄알이 없으면 나라를 지켜낼수 없으며 또다시 노가가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발전과 군수생산에 선차적힘을 돌리도록 강조하시였다.

군수공업부문을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국방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에 기초한 전투기술기재들과 장비들을 개

미국본토를 날려버릴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웅이다고 전했었다. 평화는 구걸과 간청, 타협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수 없으며 오로지 강력한 자위적무력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다.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선군의 길을 걸으면 시 자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공화국인민들이 페부로 절감한 철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의해 마련된 자위적전선역제력은 온 겨레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정밀화, 경

발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최첨단전투기술기재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다고 감복했다.

이 땅에서 우리 공화국이 단행하는 모든 군사적조치는 미국의 침략과 공격책동에 맞선 정의롭고 단호한 자위행위이다.

위대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이 팔고 사는것도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 힘이 강할 때에 막아낼수 있는 물질적전선역제력을 강화하였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주의와 그 련합세력이 아무리 이복을 고립압살하려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것이라고 하였으며 남조선출판물 《시사저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이륙할수 없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천만리길은 온 올해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락판을 안겨주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의해서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에 의하여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에 의하여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에 의하여서만 도박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력을

본사기자 리 설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길에서

원아들을 위한 특별연회

지난 국제야동절 다음날이였다.

평양에육원 원아들에게 류다른 특별연회상이 마련되였다. 평안지방, 풀찰땀, 칠색송어튀김 등 별미나는 음식이 차려졌던것이다. 맛나는 음식들을 드는 원아들을 한명 한명 살펴보는 원장에게는 어제 있던 일이 방불히 떠올랐다.

6.1절의 한낮이 기우는 저녁무렵 뚝뚝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육원원아들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제야동절을 맞은 원아들이 보고싶어왔다고, 내가 아이들의 명칭날에 육원원아들을 찾아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갔는다고 하시며 그곳을 찾으시였다. 원아들과 한테 어울려 짧고 긴 시간을 보내시였다.

새로 설치된 승강기

평양에 있는 보통강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리용하는 계단승강기는 원래 상점이 개점하기전까지는 시공상 없던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상점을 찾으시였다. 상품포장으로부터 상품의 가치수 그리고 진철에 이르기까지 구매자들의 요구에 맞

게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일일이 말씀하신 다음 2층으로 오르는 계단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상점에 작업승강기는 있고 손님들이 리용할 승강기가 없는데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보통강상점에 승강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상품구력을 2개, 3개씩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할수는 없지

않는가고 나직이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상점에 승강기를 놓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곳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상점시공에서의 편함을 헤아리시고 계단만 만든것은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나무람까지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지적하시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날 손님들이 리용하게 될 밀차도 움직여보시며 상점에서 상품봉사와 구매자들의 편의에서 사소한 허점도 생길세라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승강기를 설치할 문제를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시공에 없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어 상점을 리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것이다.

본사기자

자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오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에 이 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장정의 힘찬 발걸음과 현현한 기상에 투철한 자주정신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

자주는 그이의 정치신조이고 령도방식이며 실천이다.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애국의 길에 함께 하시면서 주체의 원칙, 자주적대가 드림없는 비범한 령도로 애국위업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실력은 어제 오날도 거창한 실천속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통일변혁의 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자주정치 위대성은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주체의 행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는데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자립적민족경제와 주체적민족문화는 자기

의 힘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며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벅찬 현실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키워자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력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것이다. 자력갱생의 궤도에서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에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자주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로 강성변명을 이룩하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다. 최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설치된 《대동강》상표가 붙은 금강하물민스크림대는 나라의 곳곳에 건설되는 물놀이장들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건설되는데 할데 대한 정세속에서는 원수님의 과업을 받들고 인민군대에서 제작한 물놀이설비로서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체험을 믿고 달려붙으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일심단결과 불태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원수님의 뜻을 따르는 공화국인민의 비상한 애국열의와 기상은 지식경제시대를 개척하고 교육과 문화에,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남김없이 파시되고있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타치는 에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누구의 도움이나 원조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자원으로 창조하고 건설하는 자력갱생만이 나라가 흥하고 민족이 발전하는 길이다.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소중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 힘이 강할 때만 지켜지고 자기 힘에 의해 담보된다. 강한 군력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자적인 주권과 결심도 생기고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과 결단도 나온다.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백방으로 다져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

고 강성국가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불태의 자위적보검으로 되고있다.

지난 4월 조선인민군 령함부대 지휘선원들을 만나신 원수님께서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적부서버릴것이라고 하시였다.

그 누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치적결단을 단호히 내리는 철의 의지, 한번 결심한것은 어떤 일경이 막아서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완강한 전개력, 적대세력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로 맞받아나가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조선의 자주적대는 절대불변이다.

위대한 정치군사강국, 사회주의생활과 기상이 약동하는 나라에서 사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진 공화국의 인민은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민족의 길 같은 오직 자주의 길뿐이라는 진리를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강은주

시류음 우 리 의 그 리 움 영 원 하 리

김연주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장님 아버지수령님 서거 20돌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창작한 시들을 본사편집국에 보내어왔다.

그리움은 우리의 명줄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령님을 목매어 찾고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던 7월
그날이 옛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니가
저 북산처럼
가슴에 쌓여지는 그리움의 메
부리

짧지 않은 그 세월의 날과 달
들에
그리움을 엮고 살아온 우리
아버이 생각에 흘린 눈물도 많
았고
받아온 사랑과 정을 못 잊어
추억깊이 새겨본 사연도 많았
습니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
이라고
남달리 품들어 보살피신 수령님
은정
약동하는 조국의 벼간 숨결로
우리 심장을 높르게 하여주신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잊는 자식 없듯이
수령님사랑 잊고산적 없는 우리
동포들
스무해가 흐르고 200년이 흐른
다 한들
수령님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수령님 우리결을 떠나신 7월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 마음속에
영원히 오신 7월이라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7월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맞으려
니다

그리움이 없는 7월은
우리에게 7월이 아닙니다
떠나서 살수 없고 없이는 못사는
정녕 그리움
그리움은 우리의 명줄입니다

우 리 는 길 립 사 람

사람마다 가슴에 안고사는
인생의 자부는 제나름이겠지만
길림에 사는 우리 동포들
지니고 사는 궁지는 하나
—우리는 길림사람이다!

우리는 길림사람
가슴찌르티 울려주는 이 말속엔
있어라
지구상 곳곳에 사는 해외의 동
포들 많아도
수령님동상을 모시고 사는
영광
오직 우리만이 누린다는 그 행
복이

열혈의 시절 아버지수령님
이 땅에 일으키신 그 길림바람
을 마시며
어제도 오늘도 사는 자랑
어디 가나 수령님 남기신
혁명의 자유도 많은 길림에서
우리는 산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수령님 항일력사의 증견자 길
림이어
여기서 숭고한 뜻
위대한 업적 길이 전해가며

수령님 사연깊은 인연을 맺으
시고
한평생 그리도 잊지 못해 하신 땅
조국인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재중동포들 누구나 마음을 두
고 사는
혁명의 고장 길림

송화강흐름이 영원하듯이
아버이수령님동상 높이높이 모
시고
후세에 영원토록 물려가리
길림에 사는 이 궁지 이 자부
아, 우리는 길림사람이다

길 립 육 문 중 학 교 에 모 신
빨재산대장
젊음에 넘치신 령장의 모습이었
습니다

수령님 떠나 못사는 우리에게
수령님의 모습으로 오신분
원수님 계시어 흐르는 세월
수령님과 떨어져 산 날 없었고
아버지없는 설움 느껴본적 없었
습니다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그처럼 뜨거운 심장에 지니시고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해외의 동포들을 안아주시는 넓은
은
그 품만이 우리가 안겨살
운명의 하늘 운명의 바다

그 하늘을 못 떠나 날아에는
우리는 그리움의 새
그 바다에 안겨 마르지 않는
우리는 푸르른 시냇물
원수님 모신것은 민족의 대행운
이거니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7월의 그리움은 영원합니다
원수님 떠나 우린 못합니다
천만년 높이 모시고 따를
우리에겐 원수님이 깨실니다
우리에겐 태양이 계시니다

지 지 않 는 꽃

꽃중의 꽃을 플라
아름답게 엮은 꽃바구니
삼가 드리웁니다

수령님 뵈고싶어 늘 찾는
우리 동포들의 발걸음 끊기지
않는 꽃

은 동북방의 꽃들이 모여
수령님동상앞에 피어오르나니

수령님 뵈고싶어 늘 찾는
우리 동포들의 발걸음 끊기지
않는 꽃

봄에 와도 여름에 와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꽃이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꽃은 피어 한계절이지만
꽃속에 수령님 길이 모시고픈
마음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지지 않는 충정의 꽃에 받들려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다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시니다

수령님 우리 동포들을 안아
보살려 베풀어주시
태양의 열처리 뜨거운 그 사랑
아, 원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이역에 살아도 조국의 녀으로
살라고
수령님 이끌어주신 걸음걸음
다심하신 아버지의 그 은정
아, 원수님은
그 친근한 아버지마음 지니셨
습니다

어이 달라야 말할수 있겠습니까
지으시는 미소도 우렁하신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시니다

음성도
어찌면 수령님과 똑 같은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대원수님

어머니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여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을 때
그이는 분명
한평생 우리 동포녀성들을 사랑
해주신
친정아버지 수령님이시였고

전승철 경축의 기쁨을 안고
원수님과 함께 기념사진 찍을
때도
그이는 분명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되고
저녁으로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로동과
휴식으로 레사로이 보내
는 그 하루하루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날, 천
날맞잡이로 헌신하시였다.
주체8(1992)년 5월 5일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왕건왕릉
을 찾으시어 왕릉을 잘 꾸리
고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어
풍의 품격을 갖추도록 할때
대해 이르신 날이다. 그날의
현지지도가 있어 왕건왕릉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용건
하게 개건될수 있었으며 통
일국가건설의
력사를 전하는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유적
으로 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령님께서
차를 멈추게 하시고는 한 일
군에게 여기서 잠시 쉬면서
아침식사를 하고 떠나자고
하시였다.
순간 그는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봄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날씨는
쌀쌀하였고 더우기 현지
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방직정
은 말라고, 자신께서 어제
저녁에 파밤을 준비시켰는
데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주
라고 하시며 그러면 개성시
평양에 도착하
는 저녁이었다.

오늘 공화국은 창조와 변
혁의 거센 열풍을 일으키
며 놀라운 속도로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그 눈부신 비약의 속도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힘이
바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나
아가는 공화국의 과학기술
이다.
최근에만도 공화국은 우
주과학기술과 CNC기술, 핵
융합기술,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개발
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
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언제나 과
학자, 교육자들의 사업과 생
활을 전하여버림으로 따
뜻이 보살피며 그들모두
를 사랑의 금방석위에 앉
혀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과학
중시, 미래중시의 정치를 떠
나 생각할수 없다.

과 학 자 들 을 금 방 석 에 앉 히 시 려 고
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
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
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
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
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
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
나리의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
다. 김창호

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
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
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
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
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
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
나리의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
다. 김창호

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
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
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
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
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
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
나리의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
다. 김창호

위 인 의 하 루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
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다고
하시였다.
골 아버지수령님게도, 동행
한 일군들에게도 밥맛에 나물
채 몇가지가 담겨진 수수한
파밤이 똑같이 차례지게 되
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일
군들과 함께 보은병의 물을
따르시며 아침식사를 하신 시
간은 15분도 채 안되었다. 이
렇게 시작된 아버지수령님의
현지지도였었다.
개 성 에 도 착 하 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고려
박물관을 보시고 그 걸음으
로 만월대와 선죽교, 포충비
그리고 고려대조 왕건왕릉을
비롯한 력사문화유적들을 돌
아보시였다. 하나하나의 유
적들을 보시며 가르치심도
주시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시에서도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날 현지지도에 대한 력
사학자들의 반응을 보고받으
시며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그이의 현지
지도로정이 그대로 집무실로
이어져 그날 하루 그이의 사
업시간은 무려 17시간에 달
하였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게 있
어서 이날은 너무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하루하
루를 이렇게 사시며 불면불
휴의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
리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은 바로 이런 가슴뜨거
운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
진것이다.
본사기자

은하과학자거리가 완공된
그날에는 과학자살림집들
을 몸소 돌아보시면서 살림
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결과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벌수 있게 되었
으며 마음을 불이그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고, 당에서는 앞으로 과학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
기슭에 또 하나의 멋쟁이건
물이 일떠서고있다.
서서히 자기의 자태를 드
러내놓으며 번듯하게 일떠서
는 이 건물이 바로 평양옥아
원, 애육원이다.
얼마전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
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옥아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
당자리라고, 옥아원, 애육
원을 우리 당의 후
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
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
야 한다고 하시면서 칠십
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는 문
제와 야의 및 실내물놀이장
오 오락실을 특색있게 꾸
러내 달란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평양옥아원, 애육원이 새
세기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
축물로, 아이들의 사랑의 요
람으로 새로 건설되고있는데
는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마음쓰시며 부족한것이 내
수령님에겐 아쉬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
려여있다.

지난 2월 그이께서는 평
양시의 옥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아버지라 부
르며 한말씀에 달려와 안
겨드리는 원아들을 품에 안
아 불도 다독여주고 몇살
이나고 다정히 물어도 주
시던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
리워한다시며 우리가 부모들
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
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
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

이 땅의 꽃봉오리를 가운데
는 단 한명도 그들진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천이
면 천, 만이면 만 온 나라
의 아이들모두가 한모습
으로 맑게 웃을 때 조국의 모
습이 더 밝고 창창해진다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
고한 후대사랑의 세계이다.
바로 이처럼 열렬하고 웅
심깊은 친애하는 사랑의
손길속에 오늘이 땅에는 아
이들을 위한 재부가 끝없이
늘어만 나고 아이들의 행복
의 웃음소리는 날에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는것이다. 이제 머
지않아 평양옥아원,
애육원은 번듯하게 일떠서
게 된다.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집.
이 집은 단순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요양관
만은 아니다. 이 집이야말로
원아들이 안겨사는 공화국의
넓은 품이며 한없이 따사로
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다. 그 품속에서 그들은 조
국의 참된 아들들, 미래의 주
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한 공
화국은 그 힘으로 세상에 존
엄받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이 땅위에 일떠세우게 될것
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민족해방력사로 길남 《민족통신》대표의 글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자주
독립과 조국통일, 민족해방
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아
로새겨져있다. 김일성주석
의 생애는 또 인류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
의 력사를 현실화하여놓았고
영원히 후대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세계 제1의 일심단결의 나
라,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
여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침
략할수 없는 군사강국을 이
룩하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
신분이다.
그이는 1912년 4월 15일
탄생하여 1994년 7월 8일까지
의 전생애를 자주독립과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
해 헌신하며 활동하다가 결
핵인 피로에 의해 서거했다.
1994년 7월 7일 마지막문건에
서명한 자료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
담자료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동포들은 그이의
서거에 피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에도 김일성주석은 우리
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생
각으로 삶의 중심에 언제나
그이를 모시어왔다.
지구촌 나라들이 2백여
개가 되지만 그 나라들가운데
가장 단결단합이 잘된 사
회를 꼽으라면 단연코 우리
민족의 결반인 이복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왈가
왈부하는 나라들은 없다. 그
리고 이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해내의 동포들
도 없다.
이북동포들은 국내외 누구
를 만나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긍지높게 생각하
는것이 일심단결이다. 이같은
단결단합의 구심에 언제
나 이북동포들의 최고지도자
가 있다.
일심단결의 독창적인 철
학사상을 만드신분은 전세계

구선생을 포함하여 민족주의
자들과 좌우세력을 하나로 만
들어 전민족대단결의 력사를
창조하였던분도 김일성주석
이었다.
미국에 의해 조국이 분
렬되었고 미국이 그 하수
인에 불과한 친미친일세력
인 리승만을 내세워 1948년
8월 15일 미국의 대리세력
으로 《단독정부》를 조작
하였지만 이에 맞서 사대
주의를 배격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갈망했던 이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
다. 그래서 이북에는 그 어
떤 의도도 없고 그 어떤
외세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하고 지시하지 못하는 그야
말로 해방지구가 건설되었
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주석
이 건설한 주체사회주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이다.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사랑의 집

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푸
집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
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
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
고,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
강기슭에 평양시의 옥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겠다
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새로 건설될
옥아원, 애육원이 풍치수려
한 대동강기슭에 자기의 터
전을 잡게 되였으며 그후에
도 그이께서는 실제로부터
자재보장대책,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시
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옥아원,
애육원건설문제를 심중에 소

나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원수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아의 운
명만큼 쓸쓸하고 눈물겨운것
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한집의 구김
살도 없이 나라의 앞날을 떠
매고나갈 믿음직한 주인들
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고있
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아이들의 밝
은 모습, 밝은 웃음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마음쓰시며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해맑음이 따사로운 사랑
의 손길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애육원은 번듯하게 일떠서
게 된다.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집.
이 집은 단순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요양관
만은 아니다. 이 집이야말로
원아들이 안겨사는 공화국의
넓은 품이며 한없이 따사로
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다. 그 품속에서 그들은 조
국의 참된 아들들, 미래의 주
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한 공
화국은 그 힘으로 세상에 존
엄받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이 땅위에 일떠세우게 될것
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출로는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우리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요구로 나선다.

특히 중요한것은 북남수뇌부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리행을 다그치는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

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사변들이 펼쳐졌다. 북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의 길이 열리고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함께 통일로 가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분렬의 장벽에 파르기를 넘어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남삼천리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진감했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 등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서로 일사단결로 갈라져 살수 없는 한겨레임을 눈물겹게 절감했다.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재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계장봉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올라 우리 민족은 북쪽도 언어도 력사도 문화도 하나인 단일민족임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지나온 날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대안경도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그런데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진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

권》의 출현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북남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유린하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과국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서지도 1년 수개월이 지나지만 북남관계는 여전히 침체와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것을 바로잡자면 하루빨리 남조선당국이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대결정책으로써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와 지어 집권층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를 외면하는것은 곧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는것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이다.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을 통해 뚜렷이 확증되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공화국의 대법하고 성의있는 제안들에 호응하여 6.15, 10.4선언을 비롯한 북남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랭전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동족사이 대결과 전쟁을 피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덜어놓고 적대시하던 랭전시대의 관념에서 경단코 벗어난 때마에 온 민족이 바라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수 있는것이다.

지구상에는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좋은 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그 어떤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다섯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상과 제도에 민족이 있다.

북과 남은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립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 기간 공화국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것을 주장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남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고 정세가 천에 한 속에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성의있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모두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없이 있으며 그것은 날로 더

욱 강렬해지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공화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이 이것을 똑바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을 사수없이 잡아야 한다. 그 길만이 겨레의 숙원인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인것이다.

당면하게는 남조선당국이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수탈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조선반도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해마다 여러차례 벌려놓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속에 놓여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매년 더욱욱 악화되고있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는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보호자가 될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북과 남의 분렬을 파하는 외세의 음흉한 침략적분성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북남사이의 모든 문제는 철저한 민주내부문제인것만 큼 북과 남이 서로 손잡고 풀어나갈 때만이 순조롭게 풀릴수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랭전시대의 대결관념에서 단호히 벗어나 민족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점에서 공화국정부성명을 하루빨리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공화국주민들의 목소리

민족의 힘, 화해와 단합의 힘을 떨치기를

체육선로서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 체육인이나 간절히 바라는것이다.

공화국을 대표하는 체육인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우승의 기쁨과 함께 남조선선수들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류다른 기쁨도 있다.

경기에는 북의 선수들도, 남의 선수들도 참가하였는데 경기장에서는 동료들의 열기된 응원과 함께 통일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하기에 남조선선수들도 경기의 승패보다 민족의 정을 더 느꼈다고 가슴속 진정을 토로한것 아니겠는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나가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지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대구대학생경기대회에 생각난다.

경기장마다 통일기가 휘날리고 북과 남이 일사단결 조국통일을 웨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피줄을 이은 한민족, 한겨레로구나 하는것을 절감했다. 그때와 같은 감동적인 화폭들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다시

인천의 하늘가에 통일기를

지금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지난 2003년 8월 남조선의 대구에서 진행된 세계체육제육경기대회에

그중에서도 특히 잊을수 없는것은 우리 응원단이 간 경기장마다에 차 넘친듯 통일기이다.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응원단원들의 손에도, 남측관중들의 손에도 하얀색바탕에 푸른색으로 조진지도를 그려넣은 통일기가 빠짐없이 들려있었다.

우리가 그 통일기를 경기장마다에서 휘날릴 때마다 남조선인들도 통일기를 힘있게 휘두르며 화답해주었고 북과 남이 함께 웨친 《우리는》, 《하나다》, 《조국》, 《통일》의 힘찬 합성이 경기장을, 아니

항공모함을 걸러온 바다에서

저들은 항공모함까지 참가시켜 대규모해상군사연습을 벌리면서도 우리보고 단거리미사일과 포탄 몇발 혼련용으로 날렸다고 《위협》이니, 《유연결의위반》이니 하는 적대시책의 궤변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날강도적심보의 발로이다.

최많은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발사와 포사격훈련을 두고 또다시 무슨 《도발》이요 뉘오 하고 걸고 들었는데 최많은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고 찍하면 아무데나 대고 미사일을 발사하곤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땅에서는 미국이 벌려놓은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런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

은 남조선땅을 들었다놓았다.

이번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여러해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이 참가한다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정말 기본 일이 아닐수 없다. 11년전 대구에서 휘날렸던 통일기가 인천의 하늘가에도 높이 휘날리고 그 통일의 세찬 펄럭임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시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양시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 교원 김미경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사과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희생자가족들이 바라는것은 돈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사해를 만드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희생자가족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퍼뜨리며 자식을 팔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만 들었다고 단죄하였다.

자식의 체취를 느끼고싶어 아이들의 옷을 입고 양말과

신발을 신고다니고 하면서 누가 내 자식을 죽였는지 알더라도 호소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 범죄자들을 밝히지 않는가고 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사외인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의 맥빠진 《도발》타령

최근 미국이 공화국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놓고 판에 박힌 《도발》타령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무부는 《북의 미사일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니 뉘니 하나 못해 나중에는 포사격훈련까지 걸고들며 《도발로는 안전보장을 못 받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늘생 해대는 《도발》타령이지만 적반하장자의 극치인 그 뻔뻔스러움에 하도 어이가 없어 짚고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자기 나라 령토에서 대포를 쏘든, 로켓를 발사하든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공화국의 자유권에 속하는 일이다. 여기에 미국이 참견할 하등의 리유란 없다. 사실상 미국의 간섭 그자체는 상대방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위협이다. 미국이 그레언체 한번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오격미사일시험발사를 하고 남의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놓았는가. 자기 땅에서 하고있는 정당방위적인 군사훈련이 《도발》이고 《위협》으로 된다면 제 땅도 아닌 조선반도주변에 술한 핵타격수단들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끌고와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수시로 벌려놓고있는 미국의 행실은 과연 무엇이라 해야 하겠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1일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라격전단과 이지스주축함 《키드》호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미국은 16일부터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남조선 해안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려놓고 있으며 련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는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일본의 연합훈련까지 참가시켜 《연합수색주축함》이라는것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그리고는 이번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내륙적》이니, 《미리 통보하였다.》느니 하며 첩문피해가 붙어놓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이 미국에 통보하고 이제부터 년례적으로 미국의 앞바다에서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벌린다면 미국은 눈감고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위협공갈하다 못해 서슴없이 침략하는것이 변할수 없는 미국의 본성이다. 제가 저지르는 엄청난 군사적도발과 침략행위는 정당행이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군사행동은 언제나 《도발》과 《위협》으로 붙어대는 파렴치한 날강도적본리는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수십년

위협과 압박, 제재속에 살아오면서 공화국 근대와 인민은 자기의 총대와 강위력한 핵억제력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에 의해 정당방위수단으로 마련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과 안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미국이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붙음을 떠르던다면 한 한치의 오차도 모르는 공화국의 위력한 첨단로켓들이 핵항공모함이라는 덩치 큰 목표물을 단숨에 보기종처럼 박살낼것이며 상상도 해보지 못한 강위력한 첨단무기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것이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제때에 생각을 바꾸는것도 지혜라 했다.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미국이 얻은것이란 지랄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이다. 미국은 지금 대조선적대시정책인 《전략적내전정책》에 고달프게 매달려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한채 무모한 야망에 시들어가고있다. 말나친 욕심때문에 손해라는 말도 있는데 맥빠진 《도발》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조용히 돌아감에 《대국》의 체면에도 어울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권고하고 싶다.

여기에는 《바다위에 떠다니는 기지》라고 불리우는 수십대의 전투목적기들을 적재한 전투진행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가하며 해상기동훈련, 항공모함호위훈련, 비행기요격훈련 등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들이 연습기간에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끝나면 련이어 미국, 일본, 남조선의 연합해상훈련도 벌어져 전세계를 더한층 격화시키게 된다.

리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북남관계문제를 전쟁경계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할때 대한 공화

평화제안에 전쟁연습으로 대답

소동에 더욱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는것은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달려서 땅중의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 등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여기에는 또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대아시아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제패 야욕실현에서 아시아지역은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미국 《련

적도상공에 《B-52》 핵전략목적기편대를 들이밀어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달려서 땅중의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 등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미국이 공화국의 호전세력이 내외의 우려와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범장난을 확대하는 길로 나간다면 반드시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1일

본사기자 서 희

왜 계속 주둔하려 하는가

최근 미국이 통산에 있는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주둔시킬 립장을 남조선당국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오는 10월에 열리게 되는 남조선미국 《내륙안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 함께 이 문제를 최종확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대아시아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제패 야욕실현에서 아시아지역은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미국 《련

요집단과 침략무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것이고 나아가서 《유사시》에 대비한 남조선공군의 군사적협조가 더욱 강화되리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이번에는 미국은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서울에 남는것이 남조선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립장을 거두 밝히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불기들을 불어오는 범죄적행위인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침략군, 강점자인 미군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운동》이 16일 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으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데 대해 군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하고있지만 공격적인 핵항공모함의 진입 그자체가 적대적군사행동으로 불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일본군대가 《집단지위권》행사의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활동이라는 점 등을 놓고볼 때 이번 군사연습은 무력시위이자 일본의 재침략을 위한 침략하는 군사행동에 다름이 아니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활발히 움직이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최근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새로 발족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곳 협회의 한회수서기장은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회의 발족은 어린이들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한 중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의 근본권리를 옹호하고 건강, 영양, 지능발육, 생활관련 봉사 등을 개선하여 앞날의 강성국가의 역군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특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생활하고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은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어린이보호의 의무는 부모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사회 자체가 어린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환경에서 자라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비롯한 근본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국가의 보살핌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시하고 국가적관심을 돌리는 공화국의 현실을 널리 선전하며 협회의 존재와 목적, 활동에 대한 소개도 적극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기관

들과 비정부단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기의 사명에 맞게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는 사업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선진 물품들을 발행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정보와 정보봉사, 각 도의 에

육원과 육아원에 대한 단계별 후원계획,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강습과 강연, 시급히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로해를 심화시키나 가고 있다.

얼마전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육아원들에 나간 협회원들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위생 상태를 료해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

하였다.

한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나가 애육원과 육아원의 어린이들에게 사계절 별 구지 않고 보정할 다시마가루, 풍가루, 참쌀가루, 물고기뼈가루와 같은 가루식용생선정향을 알아보고 필요한 방조를 주기도 하였다.

육류아동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성원총회, 집행리사회, 재정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부, 선전부, 대외사업부, 현지사무소들과 아동진료소, 이동진료소, 정보보급소, 육아원, 탁아소, 영양제생선공정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회수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은 말한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기 나라와 민족의 레일이 담보된다. 우리는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어린이후원활동을 더 잘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평양-함산관광도로를 벗어나 평안남도 평원군 읍읍으로 얼마간 가다라면 자리잡은 여러동의 건물들 볼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석암휴양소이다.

즐거움과 랑만이 넘쳐난다

◇ 석암휴양소를 찾아서 ◇

휴양생들이 락기도 치고 장기와 웃음소리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장준이야!》하고 소리 치며 《명훈이야!》하고 맞받아치면서 열을 올리는 이들의 장거기엔 쉽게 승부 가 날지 않지 않았다. 생안에서도 양보를 모르더니 경기에서도 양보를 몰랐다. 그 성가하면 웃음소리 하는 나 성양생들의 승복심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모야!》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떠돌이 웃음소리, 박수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휴양생들의 기쁨은 식사실에서 더 넘쳐났다. 팔팔과 시원한 오이냉국, 닭알과 물고기, 자체로 꾸민 온갖이 생선한 부부와 죽, 찜고추 등 식탁에 오른 음식들을 들며

다. 경치좋은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휴양소에서 울리는 휴양생들의 기쁨이 넘쳐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부딪는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행복의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최대성

평양-함산관광도로를 벗어나 평안남도 평원군 읍읍으로 얼마간 가다라면 자리잡은 여러동의 건물들 볼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석암휴양소이다.

우리가 석암휴양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정오가 가까워 울무렵이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휴양소의 안철호소장은 휴양소가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양소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휴양소의 운동장에서는 휴양생들의 배구경기가 한창이고 있었다. 재치있게 공을 다루는 선수들의 모습도 볼 만 하였지만 성수가 나서 운동장에 열을 올리는 휴양생들로 하여 배구장은 떠들썩하였다.

휴에 뜬 그 정경을 바라보며 안철호소장은 평양시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로동자들과 모두가 혁

애국활동의 변함없고 활발함으로 삼켰다

나는 이번에 제 32차 조선대학과학생 조국방문단으로 학생들과 함께 조국에 왔다.

우리 조선대학과학생 조국방문단이 해마다 조국에 오는 것은 자기의 뿌리인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해서다.

조국과 떨어진 해외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나가는 것은 민족교육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선대들이 피로써 찾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총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민족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인 우리 동포교육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학생들을 유능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교 수교양사업과 학생인입사업, 준정규교육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가 있는 동포들의 집마다 찾아다니며 민족

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조선노래, 조선장단을 배워주고 있다.

조선학교에서는 《사회》라는 과목을 통하여 우리 말도 배워주고 우리 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배워준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일본에서 살고있는가, 조국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알려주며 학생들에게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뿐 아니라 민족무용소조, 민족악기소조를 비롯하여 야외시간을 통하여서도 학생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있다.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한 《친한 동무》라는 잡지도 발행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조선학교들에서 진행되는 민족교육의 모범이 소개되기도 한다.

해마다 우리말구연대회, 예술공연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동포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동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익히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성 또한 대단하다. 총련과 녀성동맹, 청상회 등 여러 동포단체들이 학생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의 토대는 날로 튼튼해지고 있으며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민족교육의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민족교육은 어떻게 오늘도 변함없는 애국활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속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총련조선대학교 교육학부 교원 조우호

인민의 행복을 지켜

폭탄을 보는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영생탑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오직 이 한가지만을 생각했었다. 하여 그들은 폭탄의 피해방역을 줄이고 폭탄을 땅속깊이 묻고

이렇게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절세위인들의 영생탑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제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

나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레사롭게만 여겨오던 하루하루가, 자기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주저없이 폭탄이 박혀있는 구멍이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초, 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

공화국에는 가는 곳마다 근로하는 녀성들을 위한 일터가 있다. 그리고 교사, 교원, 연구사, 의사 등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일이 바쁜 녀성들을 위한 주탁아소, 주유치원이 곳곳에 있다. 어머니를 잃었거나 어머니가 장기질병으로 앓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에서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진다.

어린이들이 70명 이상 되는 탁아소에는 아동병동과 의사가 있으며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육류아동병원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 *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병원 * *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의 종합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육류아동병원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회한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신식의료비들을 그르친갖춘 이런 병원은 처음 본다.

아동병원이 이렇게 규모가 클생각도 못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돈있는 부자집아이들조차 이처럼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힘들다.

이곳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 조선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들이다.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단장 부흐만 루돌프는 병원의 하나하나의 설비모두가 최상급수준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설비들을 갖춘 병원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원들이 있는것이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

에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정말 놀랄만하다. 이 병원은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재중조선인예술단후원단원 김옥순은 참관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육류아동병원은 우리 어머니들이 꿈에서나 그려보던 희망과 행복의 전부이다.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 특히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삼가 올리고 싶다. 그이께서 계시어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중국 연변문화예술연구소 대표단 단원 정흥운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곳은 병원이기 전에 아이들의 궁전이다. 아이들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조국의 현실을 새롭게 목격했다.

정말 조국에서 아무런 걱정이 행복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부럽다.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치료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수대책까지 세워진 병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병원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 모시어 조국의 새 세대들의 앞날을 끝없이 휘황찬란할 것이다.

본사기자



어린이들이 받는 혜택

건강관리는 물론 치료식사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8, 9월 탁아소, 유치원지원월간이 제정되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 전국적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건강관리체계

중요이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인민병원과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정연한 의료봉사체계와 함께 어린이건강검진체계가 세워져

세쌍둥이건강관리체계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쌍둥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의사와 담담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공화국에서는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사들의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계를 세워놓았다. 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들이 4살이 될 때까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해준다.

본사기자

동포들이 즐겨 기다리는 잡지 《백두-한나》

처보이는 잡지를 재중동포라면 남나로스 누구나 좋아하며 기다리곤 한다.

올해 2월에 발간된 잡지 《백두-한나》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며 어린이들에게 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한 보도기사와 위대한 장군님을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갖 고교를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라는 내용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편》이라는 제목

의 기사를 실어 동포들속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력사적인 새해년사에 접하고 재중조선인총련협회 연변지구협회와 산하 각 지부 일군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된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총대제안을 재중조선인총련협회와 산하 지구협회들, 지부들, 각계층 재중조선인들이 열렬히 지지찬동하고있는데 대한 소식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동포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특히 조국을 방문하고 쓴 방문기와 인상담, 조국소식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백두-한나》잡지를 읽으

면서 재중동포들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크나큰 민족적공기에 넘쳐 총련협회사업에 발벗고나서고 있다.

《백두-한나》잡지에는 재중조선인총련협회산하 지부들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실리곤 한다.

할빈지구협회의 일군들이 생활상변화를 겪고있는 연수현지부의 한 공민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주고 꾸준히 교양하여 영구거류증을 받도록 한 사실이 심양시지부의 정우현공민이 심한 위병으로 식사를 못하고 있을 때 황영동회장을 비롯한 공민들이 방문안하여 따뜻한 위로해준 이야기, 해립

시지부에서 잡지 《백두-한나》를 읽으며 학습도 하고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모습과 국제사회에서 높아가는 조국의 위상에 대한 핵심모임을 진행한 내용을 담은 편지들은 동포사회의 단합을 실현하고 그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잡지 《백두-한나》가 동포들이 즐겨 기다리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는데는 한길수, 김영희, 김길신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협회일군들의 숨은 노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 그들은 총련협회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발전하는 현실과 동포들의 특성에 맞게 잡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질적수준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나는 사업상용무로 조국에 자주 오곤 한다.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수령, 자기 제도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긍지로 여긴다.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안내원으로 부터 인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자기 한복숨을 서슴없이 바친 인민보안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달빛같이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팔계초급도중 지진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발견되었다. 전쟁의 후과가 남아있는것은 전쟁을 겪은 나라들에서 레사상이지만 그 폭탄이 인민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원들이 조사

한 결과 폭탄은 일정한 충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폭발하는 250kg짜리 화학식탄폭탄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폭탄의 피해반경은 1500m에서 그 주위의 생명체와 공공건물이 폭탄의 피해를 입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폭탄을 보는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영생탑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오직 이 한가지만을 생각했었다. 하여 그들은 폭탄의 피해방역을 줄이고 폭탄을 땅속깊이 묻고

이렇게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절세위인들의 영생탑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제산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

나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레사롭게만 여겨오던 하루하루가, 자기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주저없이 폭탄이 박혀있는 구멍이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초, 한



다시금 절절히 깨달았다. 귀중한 인민들의 생명제산을 지키는 길에서 값은은 삶을 빛내인 그들의 영웅적외훈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인민보안원들의 인생관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복숨 서슴없이 바친 공화국의 인민보안원들의 소행과 같은 영웅적인 미지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을 위한 자기를 바치고 한복숨 다해서라도 자기 제도와 인민을 지키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상적인 미덕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이야말로 아름다운 인간사회이고 미국이 핵무기로도 위협수 없는 체질 강한 사회이다.

재중동포 김중현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

한 재미동포가 10일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실었다.

글은 북이 올해 수확한 첫물부송이를 평양시대 상로봉사망들과 육아원, 애육원, 보육원에 보냈다고 지적하였다.

조국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이 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치가 끝없이 펼쳐져 사람

들은 그분들을 흠모하고 따르며 행복을 창조해나가고 있다고 찬란하였다.

같은 이렇게 과일에 도 사람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로동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라, 일심단결이 이루어진 사회, 이런 아름다운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실체를 드러낸 1500여년전의 고구려벽화무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 던것만큼 평양일대에는 고 구려시기의 유적과 유물들 이 많다.

얼마전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에서는 평양시 삼석구 역 호남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고구려벽화 무덤은 호남리 평대산의 남 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무덤주변에는 호남리사신 무덤과 토로리큰무덤을 비롯 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어있는 고구려무덤들이 분포되어있다.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전형적인 고구려양식의 돌 칸흙무덤으로서 무덤길과 안 칸흙무덤으로 이루어진 지 상식의 외칸무덤이다.

무덤길은 남쪽으로 길게 나 있었는데 발굴당시 여기에는 막돌들이 짙게 깔려있었다. 안칸흙은 주검칸 남벽 중심에 나있으며 천정은 평천정이다. 주검칸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장방형으로 되어있다. 주검칸바닥에는 솥을 펴고 그 위에 돌과 흙을 섞어 기초다 짐을 한 다음 그위에 5cm의 두께로 회피장을 하였다.

벽화는 다듬은 돌로 견고 하게 쌓고 걸면에 회피장을 매끈하게 하였으며 천정은 평행고임2단과 삼각고임2단 위에 막돌들을 덮었던것인데 막돌들은 류설되었다.

바닥에는 2개의 판대가 놓여있다.

안길벽에 있는 벽화에는 붉은밤색의 선들이 남아있고 주검칸내벽에는 붉은색, 풀색, 붉은밤색, 검은색 등 의 색깔들로 그려진 사신도 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천정의 평행고임면에는 인동농물무늬들이 그려져있 으며 삼각고임면에는 별그 림이 그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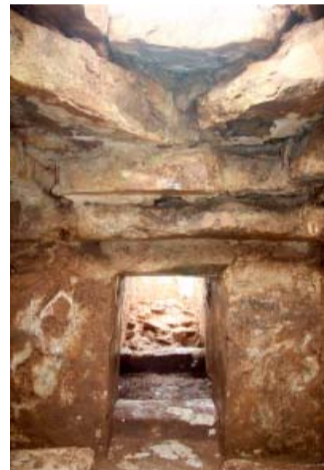
바닥에 떨어진 회피조각들 에서도 청룡의 몸체, 남글 무늬, 붉은꽃무늬, 고리무늬 등이 그려진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벽화에서 주목되는것은 별그림이다. 천정의 삼각고임면에서 그려진 별그림속에는 직경 9.8cm, 12cm인 붉은밤색의 큰 별그림도 있는데 이것은 행성으로 보이며 당시의 천문도와 비교해 볼때 작은 별그림은 삼수별자 리로, 큰 별그림은 목성과 수성으로 추측된다.

호남리 고구려벽화무덤은



호남리 6호무덤 주검칸 북벽



호남리 6호무덤 주검칸 남벽



호남리 6호무덤 주검칸 서벽 평행2단 북쪽부분 천정벽화

누릉지는 자기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다. 누릉지는 밥을 뜬뒤에 시작하여 3-4분정도 지나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마의 높은 온도도 쌀의 전분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된다.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단맛이 어울린 누릉지의 고소함은 세계의 그 어떤 향신료로도 낼수 없는 누릉지의 독특한 맛이고 누릉지에서만이 찾아 볼수 있는 유일한 향기이다.

누릉지의 역사는 수천년전 부터 벼농사를 지으며 쌀밥을 주식으로 해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식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로부터 누릉지는 민걸을 떠나는 남편과 자

가가 높으면서도 지방분해촉진효과를 가진 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있다.

그리고 누릉지의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 비타민을 비롯한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을 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 유유나 풍단백질보다 피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낮추어주며 누릉지의 식용섬유는 혈당량증가를 억제하므로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뿐만아니라 누릉지를 씹을 때 아미노산이 풍부한 침이 많이 분비되어 소화흡수가 잘되며 턱관절운동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뇌혈관질환예방에도 좋다.

민족의 고유한 음식-누릉지

강과 병치레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널리 리용해왔다. 《동의보감》에도 누릉지를 《취진방》이라고 부르며 아무때나 달여마시는 약으로 쓸것을 권고하고있다.

최근 누릉지의 효능과 우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있다. 밥이 익는 과정에 쌀의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와 물린 누릉지는 영양

관동8경

월송정이 속한다. 관동8경의 명승지들은 주로 바다가경치, 호수경치, 강변경치, 산경치 등이 대체로우면서 서로 조화롭게 결합된 명승지들이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고 입술에 물은 밥알도 무겁다고 하는 삼복철이다.

시원한 평양냉면, 무더위로 날아나

무더위의 절정을 이루는 요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대동강을 옆에 끼고 청기와를 인

합각지붕에 부채살처럼 미끈하게 휘어올린 서까래들로 나래를 편 학의 무리를 연상시키는 옥류관. 사시창철 많은 손님들로 붐비지만 불벌더위에 황소불도 녹는다는 요즘같은 때에는 시원한 평양냉면을 맛보러 옥류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몇배로 늘어난다.

그 담백함과 산뜻한 맛으로 하여 소문난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대동강중어국, 평양은반, 룡두지정과 함께 평

양의 4대음식으로 유명하다. 《동국세시기》에는 메밀국수를 무우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넣은 것을 냉면이라 하는데 관서지방의 국수가 제일 좋다는 기록이 있다. 《해동죽지》에도 평양냉면이 제일이라는 기록이 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국수를 쟁반에 담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김치, 오이, 배, 삶은 닭알 등의 고톨을 얹어

조선절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은근한것을 좋아 하는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인 생활감정에 맞게 점잖으면서도 친절하고 상냥스러운것으로 하여 그 특성이 있다.

조선절의 우수성은 무엇보다 대상에 따르는 폐의법절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게 되어있지만 원칙적으로 웃사람을 존경하여 아래사람이 먼저 하며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다르고 같은 또래사이에 하는 인사가 다르게 되어있다.

조선절은 웃사람에게는 반드시 허리굽혀 정중한 자세로 경의를 표시 하게 되어있고 웃사람은 아래사람의 인사를 받아

들어 고개를 약간 숙이는 정도로 답례를 하게 되어있다. 같은 또래사이에 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게 되어있다.

조선절은 인사표시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간에 방법상 차이나는 점도 있다. 남자가 마주 인사표시를 할 때 남자는 점잖게 허리굽혀 인사표시를 하게 되어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부드럽게 허리를 좀 더 굽혀 절을 하게 되어있어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풍토를 더 잘 나타내게 한다.

조선절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인사표현수법이 다양하고 풍부한것이다. 조선절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즉 방안과 바

발암물질을 분해하는 흰 버섯

과학자들이 흰 버섯이 발암물질을 효과있게 분해시킨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태울 때 생기는 디옥신은 독성이 많고 잘 분해되지 않으며 암을 조래할수 있다.

그런데 《흰색부식균》이라고 하는 흰 버섯은 디옥신을 분해시킨다고 한다. 이런



흰 버섯

지극한 마음씨

《센 바람이 역센 풀을 알아본다.》

어려운 때에라야 사람의 진속을 알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무슨 일이든지 온갖 힘과 정열, 정성을 기울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겉으로 표현은 안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익살을 선보하러면

◆ 매일 2~3번 연한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면 이빨이 삭는것을 예방할수 있고 이음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도 막을수 있다.

◆ 사과를 먹은 다음 꼭 양치질을 한다.

사과에는 일종의 부식제가 들어있는데 이빨건강에 아주 해롭다.

또한 식사후나 기타 음식을 먹은 다음 꼭 양치질을 하는것은 이빨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1413년에 고려의 5도량제 체를 개편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새로운 행정구역 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조선 8도라고 한다.

이때 내은 8도는 경기(오늘의 개성부근을 포 함한 경기도지역), 평안도(오늘의 평안 남북도, 자강도지역), 함경도(오늘의 함경남북도, 량강도지역), 황해도(오늘의 황해남북도지역), 강원도(오늘의 강원도지역), 충청도(오늘의 충청남북도지역), 전라도(오늘의 전라남북도, 제주

조선 8도와 13도

도지역), 경상도(오늘의 경상남북도지역)이다.

이때 《경기》는 왕궁이 자리잡고있는 지역이라 하여 직할도로 하였다. 이 시기부터 《조선8도》, 《조선13도》, 《조선15도》로 명칭을 바

사화

명화 《례성강도》 (2)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저... 이 그림은 잘 그려진 하였소이다. 그런데 여기에 담은것이 려성강이니까, 벽란도이니까?》

(?...) 리녕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여 송이의 쌍가풀눈을 훑어 쳐다 보았다.

《그럼 한번 여길 둘러보소이다.》

송이는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우리 벽란도는 보다싶이 개경의 광화문앞거리를 보는데 한나이다. 웅장한 객관들, 멋진 루, 정들, 대창들, 각, 점들이 차마를 맞대고 그 주변은 저렇게 울긋불긋한 사누운, 복숭아꽃, 하얀 오얏꽃들이 단장을 하였다. 강을 둘러보면 찾아오고 떠나가는 이국의 큰 배들이 봄비는데 파란 벽파는 기슭을 치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듯 하나이다.》

오죽했으면 당나라 속종황제가 황자로 우리 나라에 왔

을적에 려성강과 벽란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감히 이곳에서 밥을 때지 못했기 아니겠나이까.》

리녕은 열이 빠진듯 송이의 예쁜 얼굴만 쳐다보았다. 사실 나는 이 그림속에 송이와 같은 마음을 담지 못 하였다. 송이의 말을 듣고 보니 금방 그런 그림은 넓은 려성강의 자그마한 한쪽을 그려놓은 졸작에 불과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도 마음이 흠족하여 감히 《례성강도》라고 제명까지 달려 했다.

《광필이 아버지, 려성강으로 말한다면 우리 개경의 얼굴이 아니겠나이까?》

이날 리녕은 송이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리녕 자기는 나이가 마흔을 가까이 할 때까지 이 려성강이 개경의 얼굴이고 려성강을 그리면 마땅히 고려의 얼굴이야 한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리녕은 송이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터벌터벌 개경으로 돌아왔다.

머칠후 리녕은 고려의 열이 갖는 《례성강도》를 그림 결심을 가지고 광필이를 업고 또다시 벽란도를 찾아 왔다.

송이를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 녀자는 구면지기같았고 친누이동생 같기도 하였다.

송이는 그날 저녁 리녕이 든 객관방을 찾아와 빨간 비단천에 꾸민것을 내놓았다.

《사실 이걸 들고 개경에 찾아가려 했나이다.》

《이건 뭐요?》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집 가보인줄 하나이다. 소녀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한 때 그림을 그린적이 있었나이다.》

《그렇소?》

리녕은 너무 기뻐 송이의 두손을 꼭 그리잡았다.

《어쩐지 그림을 볼줄 안

다 하였지. 그런데 이진 무슨 가보요?》

《글쎄 펼쳐보시오이다.》

호기심에 사로잡혀 빨간 비단천을 펼친 리녕은 금시 숭엄한 감정에 몸이 굳어졌다. 두손우에서 온화한 기운을 머금은 박달잎금이 자기를 굽어보고있지 않는가. 예지와 결단히 넘치는 부리부리한 눈, 만사에 통달한 학식과 슬기가 총만한 번듯한 이마, 관후한 덕망이 흐르는 두볼, 위엄스러운 기품이 엮보이는 뒤통한 코, 로숙하고 세련됨이 그대로 어려있는 검은 수염, 《그대는 몇대 후손이뇨?》 하고 인자하게 묻는것만 같은 유순한 입...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박달잎금의 화상이었다.

《이 화상은 술거분께서 그리셨다고 하나이다.》

(술거?)

얼마나 생신하고 섬세한 묘사인가. 힘있는 강조와 선명하고 대조적인 채색은 천재의 붓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한다.

천재의 뛰어난 손끝에서 황룡사벽에는 숨을 쉬는 소나무가 심어졌고 하

여 날마다 날새들을 불러 들였다.

동서고금에 그와 비길 비범한 화공이 몇몇이나 있으랴.

리녕은 고구려의 화공 담정과 술거의 화법을 이어내지 못한 자책으로 하여 가슴을 치고싶었다. 박달잎금의 화상을 우러를수록 리녕은

나이다.》

《이걸 나한테?》

이렇게 되여 리녕은 송이네 집 가보로 대대로 물려온 박달잎금의 화상을 가지게 되었다.

리녕은 그후 송이에 대해서 얼마간 알게 되었다.

송이의 아버지는 그림을 무척 사랑하였는데 어린 딸

를 안고 붓을 틀어잡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수 있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량자의 이름을 송이라고 불렀을것이고 그가 그림에도 밝은것이였다.

《아빠!》

언제 들어왔는지 광필이가 송이의 무릎에 제자리인듯 못 앉으며 소리쳐 부르짖고 있었다.

(원 자식들...) 리녕은 두팔을 펼치려다가 불에 덴듯 움츠리고말았다. 송이가 불렀듯 광필이의 어미로 보였던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열빠진 생각들...) 리녕은 머리를 세차게 흔 들었다.

《아빠, 그림!》

광필이 송이의 무릎우에서 빠져나오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돼지털로 만든 저모필과 함께 종이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아빠! 내가 아지미와 같이 그려가다.》

리녕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종이장을 받아들였다. 광필은 으쓱거리며 리녕의 옆에 척 비끼고였다.

리녕은 심중한 안색이 되

어 종이장을 들여다보았다. 벽파가 설레이는 강물을 증류수 있다고 말하곤 하였다. 송이네 집가보로 물려온 리녕의 이름을 송이라고 불렀을것이고 그가 그림에도 밝은것이였다.

《아빠!》

언제 들어왔는지 광필이가 송이의 무릎에 제자리인듯 못 앉으며 소리쳐 부르짖고 있었다.

(원 자식들...) 리녕은 두팔을 펼치려다가 불에 덴듯 움츠리고말았다. 송이가 불렀듯 광필이의 어미로 보였던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열빠진 생각들...) 리녕은 머리를 세차게 흔 들었다.

《아빠, 그림!》

광필이 송이의 무릎우에서 빠져나오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돼지털로 만든 저모필과 함께 종이 한장이 쥐여져있었다.

《아빠! 내가 아지미와 같이 그려가다.》

리녕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종이장을 받아들였다. 광필은 으쓱거리며 리녕의 옆에 척 비끼고였다.

리녕은 심중한 안색이 되



명화 《례성강도》 (2)의 일부분